

# 국무총리 모두말씀

-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대회 지원위원회, 7.5(수) -

-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개막이 약 220여일 앞으로 다가왔음
  - 그간 대회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신 문화체육관광부, 조직위원회, 강원도, 대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등 관계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정확히 6년 전인 2011년 7월 7일, 우리는 온 국민의 성원과 열망 속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했음
  - 그 때의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 번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준비해야 될 때가 됐음. 평창 동계올림픽이 역대 최고의 동계올림픽이 되도록 모두 열정을 다시 한 번 모아 주시기 바람
  
- 먼저 “올림픽의 가장 기본적인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함
  - 경기장 건설, 숙식환경, 교통, 안전, 장애인 이동편의 등 모든 측면에서 철저히 준비된 대회가 되어야 함
  - 그리고 국내외 선수단은 물론 관람객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드릴 수 있도록 수요자 입장에서 이용자 편의를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함
  
- 다음으로 “국민의 관심 고조”가 이제는 절실해지고 있음
  - G-200, 100일, 성화봉송 등을 계기로 홍보를 강화하고 각종 미디어를 활용해서 국민들 사이에서 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도록, 이제는 그러한 노력을 시작할 때가 됐다고 생각함

- 우리 국민들께서 이미 88서울올림픽이나 2002년 월드컵을 성공시킨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도 성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지만, 그 때 못지않은 뜨거운 열기가 지금부터는 예열될 때가 됐다고 생각함
- 또한 스포츠와 올림픽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적극적인 지원"도 중요함
  - 최근 K-Sports 재단 스캔들로 체육지원단체들, 기업들의 많은 위축이 감지되고 있음
  -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청산하고자 하는 것은 정경유착 또는 체육마저도 사적이익 추구의 도구로 활용하려고 했던 왜곡된 행태, 이것을 청산하려는 것이지 체육을 진흥하고 체육 꿈나무를 육성하는 그런 일들을 위한 기업들의 지원까지 우리가 문제시 하고 있는 것은 아님
  - 오히려 그것은 더욱더 권장 받아야할 일이고,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기업들이 국민 속에 뿌리를 내리고,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국민기업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 될 수 있는, 오히려 더 좋은 기회를 만들 수도 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싶음
  - 공공기관 또한 올림픽 후원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통해서 공익에 기여하는 그런 노력을 해주셔야 될 때가 됐음
- 올림픽의 성공뿐만 아니라 남북화해·협력을 말하기에는 좀 어색한 국면입니다만, 그래도 얼음 밑에서도 강물은 흐르는 것처럼, 체육 활동을 통한 남북화해·협력 분위기의 유지, 이런 것은 절실함
  - 이미 대통령께서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를 제안하셨고, IOC 위원장도 협조의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여를 다시 한 번 제안 드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음

- 마지막으로 “대회 이후”까지를 생각하는 대회 준비라는 개념이 있을 수 있음
  - 지금 몇 개 경기장의 사후 활용 문제라든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만, 경기장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의 여러 시설들도 동계 올림픽 이후에도 생명력을 갖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긴 시야로 올림픽을 준비해 주셨으면 함
  
- 88서울올림픽 때의 에피소드임. 당시 정부는 작곡가들 또는 가수들에게 밝은 노래를 많이 만들어서 부르도록 종용을 했었음
  - 그때 나온 노래가 아 대한민국, 하늘의 조각구름이 떠있고, 강물에는 유람선이 떠다니고 하는 그런 노래인데, 그 때 조용필이라는 가수는 쓸쓸한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음.
  - 그게 서울 서울 서울임. 굉장히 우울한 노래였는데,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어떤 인터뷰에서 조용필씨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음
  - 기자가 묻기를 다른 가수, 다른 작곡가들은 모두 밝은 노래를 만들어 불렀는데 왜 조용필 씨 당신만은 쓸쓸한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조용필 씨가 이렇게 말했음
  - 축제 뒤에는 쓸쓸함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했는데, 조용필 씨의 말이 딱 맞아 떨어진 것이, 올림픽 이후까지 계속 사랑받은 노래는 서울 서울 서울 밖에 없었음
  
- 에피소드를 말씀 드리는 것은 올림픽 이후의 우리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까지를 내다보면서 준비를 하는, 그런 대회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임

- 예를 들면 제가 레저 분야 또는 리조트 분야의 기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평창 대관령 경기장 부근에 좋은 유럽식 숙박시설 또는 와인도 마시고 음식도 먹고 하는 그런 식당을 만든다면, 임시식당이 아닌 항구식당으로서 만든다면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고조된 레저 문화 또는 음식 문화를 즐길 수 있게 될 것이고, 거기를 올림픽 이후에도 계속 찾아가는 곳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예를 들면 그런 안목의 준비가 곁들여 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음
  
- 오늘 지원위원회는 바로 그런 것들, 준비상황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관심 고조 그리고 지원 분위기의 고조, 북한의 올림픽 참가 그리고 올림픽 이후까지를 내다보는 올림픽의 준비, 이런 테마로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함